



[해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설 연휴 中공장 방문 비메모리 육성 행보 03



Economy

| | | | |
|----------|----------------|-----------|---------------------|
| 코스피 | 2203.46 (0.00) | 코스닥 | 716.92 (0.00) |
| 금리 (2개월) | 1.80 (0.00) | 환율 (100원) | 1118.80 (0.00) (6일) |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서 악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北·美 2차정상회담 27~28일 베트남서

트럼프 국정연설서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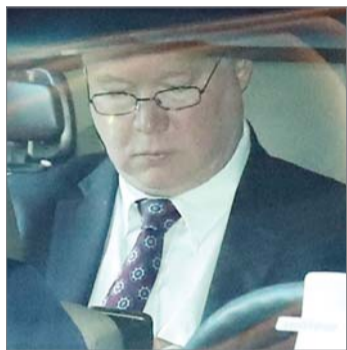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밤 9시쯤 (미국 동부 현지시간) 연방의사당 하원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 때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전 세계에 알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베트남 내 어떤 도시에서 회담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우리의 과감한 새 외교정책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에 억류된) 인질들이 귀환했고, 핵실험이 중단됐다. (또) 15개월 넘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내 생각엔 지금 당장 북한과 중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는 2차 북미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되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



6일 미국 국무부 등에 따르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평양에서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 4일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 시내의 한 호텔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차 북미회담 날짜와 장소를 확정할 것을 환영한다"며 "두 정상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70년간 적대의 역사를 씻어내는 첫 발을 뗐다. 이제 베트남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미국과 베트남은 총과 칼을 겨누는 사이지만 이제는 친구"라면서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에 베트남은 더 없이 좋은 배경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청와대는 다가올 북미회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일 취재진과 만나 "북미간 협상 진행에 따라 (문 대통령 베트남행)이 달렸다"면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t114@



갈 길 잃은 카드사, 高利대출 집중 11% 늘어 30조... 가계부채 새 뇌관

지난해 9월 말 기준 카드론 이용액이 1년 새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대출이 증가하면서 카드 연체액, 연체율도 증가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카드론으로 몰린 데다 카드사들도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카드론에 집중한 탓이다.

카드론 급증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각종 규제로 갈 길 잃은 카드사가 고리대금업으로 전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국내 7개 카드사의 지난해 9월 말 누적 카드론 이용실적은 30조1817억원으로 전년 동기(27조2532억원) 대비 10.75% 증가했다.

카드론이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곳은 현대카드였다. 지난해 9월까지 누적 카드론 이용실적은 4조7756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9229억원)보다 21.74%나 늘었다. 이어하나카드(13.79%), 삼성카드(13.16%), 우리카드(12.92%), 롯데카드(7.62%), 신한카드(6.35%), 국민카드(3.91%) 등의 순이었다.

카드대출이 크게 늘어난 배경은 카드사가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각종 규제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져 카드론에 집중한 탓이다. 게다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고금리(연 14% 안팎)를 감수하더라도 대출을 하려

<7개 카드사 카드론 이용실적 및 연체액, 연체채권비율> (백만, %)

| 카드사 | 카드론 | | | 연체액(1개월 이상) | | | 연체채권비율(대한대출 포함) | | |
|--------|------------|------------|--------|-------------|-----------|---------|-----------------|---------|-------|
| | 17년 9월말 | 18년 9월말 | 증감율 | 17년 9월말 | 18년 9월말 | 증감율 | 17년 9월말 | 18년 9월말 | 증감율 |
| KB국민카드 | 4,489,202 | 4,664,568 | 3.91% | 201,340 | 230,475 | 14.47% | 1.49 | 1.64 | 0.15 |
| 롯데카드 | 2,969,969 | 3,196,193 | 7.62% | 136,239 | 113,548 | -16.66% | 1.51 | 1.03 | -0.48 |
| 삼성카드 | 4,831,808 | 5,467,893 | 13.16% | 217,002 | 263,315 | 21.34% | 1.1 | 1.26 | 0.16 |
| 신한카드 | 6,237,766 | 6,634,128 | 6.35% | 320,890 | 394,385 | 22.90% | 1.52 | 1.65 | 0.13 |
| 우리카드 | 2,364,274 | 2,669,762 | 12.92% | 109,928 | 132,573 | 20.60% | 1.92 | 1.92 | 0 |
| 하나카드 | 2,437,295 | 2,773,509 | 13.79% | 112,019 | 121,074 | 8.08% | 2.01 | 2.21 | 0.2 |
| 현대카드 | 3,922,942 | 4,775,666 | 21.74% | 76,603 | 120,924 | 57.86% | 0.83 | 1.17 | 0.34 |
| 합계 | 27,253,256 | 30,181,719 | 10.75% | 1,174,021 | 1,376,294 | 17.23% | 10.38 | 10.88 | 0.5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내 7대 카드사 '카드론' 30조1817억... 10.75% ↑

현대카드 누적액 22% 급증 연체액 증가율도 가장 커 금리 인상 땀 건전성 비상

는 서민들이 몰린 탓이다.

문제는 카드대출이 늘어나면서 연체액과 연체율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것. 작년 9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의 1개월 이상 연체액은 1조376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740억원)보다 17.2% 증가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의 연체액 규모가 가장 컸다. 작년 9월 말 신한카드의 연체액은 전년 동기(3208억원) 대비 22.9% 증가한 3943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는 2170억원에서 2633억원으로 늘었고 국민카드도 2013억원에서 2304억원으로 증가했다. 롯데카드만 유일하게 1362억원에서 1135억원으로 16.66% 감소했다.

특히 현대카드는 연체액 증가율이 가장 큰 카드사로 조사됐다.

현대카드의 연체액은 2017년 9월 말 766억원에서 지난해 9월말 1209억원으로 1년 새 57.86%나 급증했다. 카드사 중 카드론이 가장 크게 늘면서 연체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체액만 증가한 게 아니라 연체채권비율은 동반 상승했다. 대한대출을 포함한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도 같은 기간 10.38%에서 10.88%로 1년간 0.5%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별 연체채권비율을 보면 하나카드(2.01→2.21%), 신한카드(1.52→1.65%), 국민카드(1.49%→1.64%), 삼성카드(1.10%→1.26%), 현대카드(1.03%→1.17%) 등 대부분 증가했다. 우리카드(1.92%)는 보합을 기록했고, 롯데카드는 오히려 1.51%에서 1.03%로 0.48%포인트 감소했다.

신용카드사의 연체액과 연체율은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척도 역할을 한다. 통상적으로 금융권에서는 다른 대출금보다 카드 사용대금 상환을 우선 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데, 그럼

에도 신용카드사의 연체액이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인상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시중금리에 반영된다. 연체액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대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달 여신금융업권 CEO 합동 신년 조찬 간담회에 카드사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여유진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증금리대출 활성화 계획 등의 영향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여신업무의 경쟁이 심화돼 수익성이 저하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외국인 1월 코스피 4조 '쇼핑'... 45개월來 최대

삼전·하이닉스에 78% 집중

외국인투자자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코스피시장에서 4조 원어치의 주식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수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1월 한 달간 코스피시장에서 4조5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월별 순매수 금액으로는 2015년 4월(4조6493억원)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개인은 3조2295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은 8431억원어치를 팔았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

어 코스피는 1월에 8.03% 올랐다.

지수는 2월 1일 기준 2203.46으로 작년 10월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종목별(우선주 제외)로 보면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2조335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도 8224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 순매수 금액의 78.0%가 이들 양사에 집중됐다.

또 한국전력(1927억원), 삼성SDI(1238억원), LG화학(1072억원), SK(1032억원) 등을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속한 전기전자 순매수 규모가 3조4502억원으로 전체의 85.2%를 차지했고 금융(4873억원), 화학(2682억원),

건설(218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는 작년 4분기 증시 급락으로 주가가 싸진 데다 미중 무역분쟁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긴축 등 불안 요소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1월처럼 강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증시의 급격한 하락 전환 가능성도 작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반의 안도감에 힘입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크지만, 경기 둔화 및 기업 이익 감소에 따라 주가 상한도 제한된다"며 "2080~2250 가량의 박스권 흐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으며 중국 등의 경기 부양책도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급격한 코스피 반등으로 평가가치(밸류에이션) 매력력이 약해진 점, 실적발표 시즌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조정 강도는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